

# 《滿漢西廂記》 소개와 주석\*

김수경\*\*

## <목 차>

1. 서론
2. 본론
  - 2.1 《滿漢西廂記》 소개
  - 2.2 《滿漢西廂記》 주석과 번역
3. 결론

## 1. 서론

우리는 여진족의 금나라 및 만주족의 청나라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때문에 만주족, 만주역사, 만주어, 만주문학 연구는 우리 역사와 언어, 문화 연구에도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만주학 연구의 중요성이 인지된 이후 언어 학 분야에서는 관련 연구가 세밀하게 진행되었다. 역사 분야도 新淸史 연구를 중심으로 만주족의 역사가 여러 각도에서 조명되고 있고 滿文 사료도 면밀하게 조사되고 있다. 그러나 만주족에게는 고유의 문학이 없다는 인식으로 만주 문학과 관련된 연구는 거의 진척되지 못했다. 이런 선입견과는 달리 만주족에게는 만주어로 된 시·산문·전기·일기·편지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있고 신화와 전설 등 만주족 고유의 전통과 문화가 스며있는 서사 작품이 다수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5A8027821)

\*\* 상지대학교 교양대학 조교수(taajii@hanmail.net)

전해진다. 또 淸은 국가사업으로 중국 문헌을 만주어로 번역하며 상당수의 한문 문학을 번역했다. 이로써 만주족은 四大奇書를 비롯한 연의, 인정 소설 등 중요한 한문소설을 만주어로 감상할 수 있었다. 그리고 현재 이 번역서들은 만주어 연구, 만주어와 중국어의 관계 및 과거 동북아시아의 언어교류와 관련된 정보가 담겨있는 중요한 자료로 남게 되었다.

이민족으로 중국을 가장 오랫동안 지배한 만주족은 淸 일대 명실상부 한족의 우위 계급이었다. 지배층이었지만 그들은 그들의 언어와 문화가 협소한 것을 인정했고 이를 지키기 위해서 피지배층의 언어와 문학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淸은 황실 내에 번역 기구를 설치하고 전문 번역사를 두어 한적을 번역했다. 이곳에서 《三國演義》를 비롯한 수준 높은 중국 문학 작품이 번역되었고 그 번역에 《西廂記》가 포함되었다. 만주족의 자기 언어를 지키려는 노력으로 鶯鶯과 張生의 이야기가 만주어로 기록되었고 마침내 《西廂記》는 만주어로 번역된 유일한 희곡작품이자 만주족의 유일한 희곡작품으로 남을 수 있게 되었다.

明代 간행된 《西廂記》는 본토뿐 아니라 주변국에 가장 많이 전파되고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중국 희곡이다. 본 연구는 청대 만주어로 번역된 《西廂記》를 통해 만주어와 《滿漢西廂記》를 이해하고자 한다. 이는 만주족이 중국 문학을 어떻게 수용했으며 중국 문학은 만주족에게서 어떻게 재생산되었는지 이해하고자 함이다. 번역은 다음의 방법으로 진행했다.

첫째, 만주문자는 뮐렌도르프(Möllendorff, Paul Georg von)식 표기법에 따라 전사했다.

둘째, 대역은 가능한 만주어 뜻을 그대로 표기하고자 했다.

셋째, 고유명사 등을 대역할 때는 한자로 표기했다.

넷째, 각 엽(만주어 원문의 한 면)은 ‘//’을 표기하여 구분했다.

다섯째, 만주어본에 있는 마침표(.)는 대역에서 그대로 표기했다.

여섯째, 《滿漢西廂記》에 기록되어 있는 한자 중 입력할 수 없는 한자는 원문에서 가져왔다.

## 2. 본론

### 2.1 《滿漢西廂記》 소개

#### · 소장처 및 판본

《滿漢合璧西廂記》<sup>1)</sup>를 누가, 언제, 왜 번역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파악은 어렵다. 다만 《滿漢西廂記》의 서문에 *elhe taifin i dehe uyuci aniya, aniya biyai sain inenggi*(康熙 四十九年 正月吉旦)라 기록된 것을 바탕으로 늦어도 1710년(1708년 번역본은 曲부분만 번역한 것이다)에는 《西廂記》의 만주어 번역이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18세기 초 번역이 완성된 《西廂記》는 필사본, 각본의 형태로 기록물을 남겼다. 순수 만주어로 번역한 《滿文西廂記》, 만주어 옆(오른쪽)에 한문을 기록한 《滿漢合璧西廂記》(康熙 49년 1710년), 曲文 부분만 번역한 《精譯六才子詞》(康熙 47년 1708년)가 있다.

이들의 만주어 제목은 만주어만으로 번역한 것은 “*si siyang gi bithe*”, 합벽 형식으로 번역된 것은 “*manju nikan si siyang gi bithe*” 혹은 “*manju nikan hergen i araha si siyang gi bithe*” 曲文만 번역한 것은 “*narhušame ubaliyambuha luts'ai dzi ts'i*”이다.

《滿文西廂記》는 國家圖書館, 首都圖書館, 北京大學圖書館, 中央民族大學圖書館, 中國社會科學院民族學與人類學研究所圖書館, 國家博物館圖書館, 中國第一歷史檔案館, 故宮博物院圖書館, 雍和宮(이상 중국), 臺灣大學圖書館, 몽골 울란바토르 국립도서관(2부), 프랑스 국립중앙도서관(완정본 1부, 결본 1부),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동양학연구소(2부), 샹트 페테르부르크 대학도서관(2부), 미국 자연사 박물관 등에 소장 되어있다.

《滿漢合璧西廂記》는 北京圖書館, 首都圖書館, 中國社會科學院文學研究所,

1) 본 연구에서 《滿漢合璧西廂記》는 《滿漢西廂記》로 기록했다.

中央民族大學圖書館, 民族文化宮, 大連圖書館, 遼寧省圖書館, 旅順圖書館, 齊齊哈爾市圖書館(이상 중국) 東京大學文學部中國哲學中國文學研究所, 京都大學圖書館, 天理圖書館(이상 일본), 臺北國家圖書館, 프랑스 국립중앙도서관, 캄브리지 대학도서관, 독일국립대학 프로이센문화관, 튀빙겐대학도서관, (독일)로스토크대학도서관,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동양학연구소(3부), 상트 페테르부르크 대학도서관(2부), 서울대학교 규장각(영인본)에 소장되어 있다. 현전하는 대부분의 만주어 번역 《西廂記》는 합벽형식의 책이다.

《精譯六才子詞》는 臺灣大學圖書館과 中央民族大學圖書館<sup>2)</sup>에 있다. 《滿文西廂記》, 《滿漢合璧西廂記》, 《精譯六才子詞》 중 가장 이른 번역본은 康熙四十七年(1708) 간행된 寄暢齋刻本 《精譯六才子詞》이다. 총 四冊으로 구성되어 있고 滿漢合璧의 형식으로 線裝되어 있다. 크기는 26.6 x 17.4cm이며 7열로 기록되어 있다. 한문 서명이 있으며 원본은 中央民族大學圖書館에 있다. 순수 만주어 번역본은 총 4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기는 21 x 14.5cm이다. 曲은 7열, 科白은 10열로 기록되어 있다. 臺灣大學圖書館에 완정본이 있고 中央民族大學圖書館에 1冊이 있다. 합벽본은 대부분 필사본이며 남아 있는 수량도 가장 많다. 1710년에 간행된 《滿漢西廂記》 외에 1796년 필사본도 여러 곳에 있다. 서울대학교에 있는 1710년본 《滿漢西廂記》 4권 4책은 동경대 소장본과 동일한 영인본이다.<sup>3)</sup> 《滿漢西廂記》 역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세로 쓰기 되어 있으며 만주어 오른쪽에 한문이 병기되어 있다. 아래의 그림1(한문 女兒的喚做紅娘을 기록하는데 오른쪽 열에 만문 gung의 왼쪽 아래로 그려진 획 때문에 喚做的 간격이 많이 벌어져 있다), 그림2(한문 性張名珙을 기록하는데 오른쪽 열에 만문 nenehe의 점과 왼쪽 아래로 그려진 획 때문에 名珙의 간격이 많이 벌어져 있다.)에서 보는 것과 같이 만주어의 점과 긴 획 등을 피해

2) 만주어 번역본 서상기 소장처는 世界滿文文獻目録·初編, 全國滿文圖書資料聯合目録, 北京地區滿文圖書目録, 遼寧省圖書館滿文古籍圖書宗録, 大連圖書館所藏少數民族古籍圖書總目録 및 Gimm, Martin. "Manchu translations of Chinese novels and short stories: An attempt at an inventory"; *Asia Major* 1.2 (1988): 77-114. 등을 참고로 조사되었다.

3) 본 번역은 日本 東京大學所藏本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臺北 國家圖書館의 합벽본과, 미국 국회도서관에 소장된 필사본을 참고하였다.

서 한자를 쓴 것으로 만주어를 모두 기록하고 난 다음 한문을 기록한 것을 알 수 있다. 《滿漢西廂記》는 5엽 28열의 序로 시작되어 있으며 매회 마다 제목과 회차 표기가 있다. 科白 부분은 12열, 詩詞 부분은 6열로 기록되어 있다. 필사본의 경우 科(배우의 동작), 白(대사)은 6열 詩詞 부분은 5열로 기록되어 있다. 본 번역에 참고하는 동경대학 소장본 《滿漢西廂記》에는 다른 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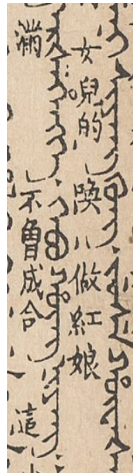


그림 1. (1엽 9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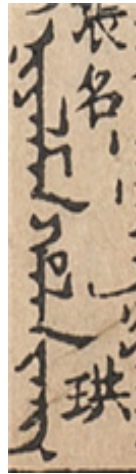


그림 2. (4엽 6행)

문학의 번역본과는 달리 본문 위에 메모 형식의 간단한 기록과 필기 등이 있다. 단어에 대한 해설도 있고 어려운 한자에 대한 풀이도 있다.<sup>4)</sup> 《滿漢西廂記》과 《精譯六才子詞》과 비교하면 둘의 번역이 상당히 달라 전자가 두 해 전에 나온 후자를 바탕으로 번역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 둘의 영향 관계와 어떻게 科白보다 더 어려운 曲의 번역이 선행되었는지 역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 번역자

《滿漢西廂記》의 번역자에 대한 명확한 기록은 없다. 다른 문헌 기록에 근거해 和素라 추정할 뿐이다. 《精譯六才子詞》의 맨 앞에 ‘廣寧劉順正亭甫較正’이라는 기록이 있지만 ‘劉順’에 대해서도 알려진 바가 거의 없어 《西廂記》를 만주어로 번역한 사람을 정확하게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昭槎(1776~1829)의 《嘯亭續錄》 卷1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어 소개한다.

翻書房이 太和門 西廊에 설치되고 기인 관원 가운데 청문을 익힌 사람들을 선

4) 이러한 기록은 《滿漢合璧三國志》, 《滿文金瓶梅》, 《滿文水滸志》 등에는 전혀 없다.

받았다. 정해진 수는 없었다. 《資治通鑒》, 《性理精義》, 《古文淵鑿》 등의 책을 모두 청문으로 번역했다. 어렵고 뜻이 오묘한 것에 번잡한 주석 없이도 스스로 알기 쉽게 되니 일시에 성행하였다. 戶曹중 和素라는 자의 번역이 출중했다. 그는 《西廂記》, 《金瓶梅》를 모두 번역했는데 문장이 매끄럽고 의미를 잘 살려 사람들이 모두 다투어 읽었다.<sup>5)</sup>

또 徐珂의 《清稗類鈔》에도 滿文《西廂記》에 대한 짧은 언급이 있어 아래에 소개한다.

도성 유리창 서점에 《滿文金瓶梅》가 있는데 인명 옆에 漢字 주가 달려 있다. 대개 內務府에서 나온 刻本이다. 戶部郎中 和泰가 번역했다. 이 책 외에도 《西廂記》가 보인다. 무릇 나라 초기에 翻書房을 두고 이곳에서 모든 일을 했었는데 사람들이 유희거리로 보았지 책령으로 한 것은 아니다.<sup>6)</sup>

《嘯亭續錄》의 기록을 통해서는 《金瓶梅》와 《西廂記》 등이 만주어로 번역되는 데에 和素가 큰 역할을 했다는 짐작을 할 만하다. 그러나 《清稗類鈔》에는 《西廂記》에 대한 언급만 있고 청 당시 세워진 翻書房에서 사람들이 보고 즐기려고 번역한 것이라는 내용만 있어 和素를 《西廂記》의 번역자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康熙시기 사람인 和素는 金 황실의 후손인 阿什坦<sup>7)</sup>의 둘째 아들이다. 字는 存齋, 純德이고 內務府 鑲黃旗人이다. 한문과 만문에 능통했으며 御試로 진행되는 만주어 시험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고 筆帖式<sup>8)</sup>로 관

5) “設翻書房於太和門西廊下，揀擇旗員申請習清文者充之，無定員，凡資治通鑒，性理精義，古文淵鑿，諸書，皆翻譯清文以行，其深文奧義，無煩注釋，自能明晰，以爲一時之盛。昭槿，有戶曹郎中和素者，翻譯絕精，其翻西廂記，金瓶梅，諸書，疏櫛字句，咸中綮肯，人皆爭誦焉。” 昭槿，《嘯亭雜錄》，中華書局，1980，397면.

6) 京師琉璃廠書肆有滿文之‘金瓶梅’，人名旁注漢字，蓋爲內務府刻本，戶部郎中和泰所譯者也。此書而外，尚有西廂記，蓋國初雖有翻書房之設，此或當時在事諸人以遊戲出之，未必奉勅也。徐珂，《清稗類鈔》，中華書局，1986，4031면. \*和泰는 和素의 오기로 보인다.

7) 阿什坦(?~1686年): 和素의 아버지. 進士를 지냈으며 청대 유명한 만주어 번역가이다. 《大學》，《中庸》，《孝經》 등의 儒家經典을 번역했다.

8) 청은 한족과 만주족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전문 통번역사인 啓心郎과 筆帖式을 두었다. 筆帖式은 만주어 ‘bithesi’의 한어 표기로 文書, 士人, 博士라는 의미이다. 《禦製增訂清文鑒》에서는 ‘bithesi’를 ‘筆帖式’으로 기록하고 뜻은 ‘jurgan yamun -i bithe dangse de afaha hafan be, bithesi sembi’라 풀었다. 《禦製增訂清文鑒》: 卷四, 設官部二, 臣宰

직에 들어섰다. 후에 Baksi(巴克什) 칭호를 하사받았다. 翻書房總裁, 內閣侍讀學士를 역임하고 內務府員外郎을 지냈다. 황실의 신임을 얻어 皇子的 교육을 맡기도 했고 후에 翻書房 武英殿의 일을 책임지게 되었다. 성품이 온화하고 성실하여 주변의 존경을 받았다. 현재 알려진 청대 만주어 번역가로는 가장 유명한 사람이다. 《西廂記》외에도 《左傳》, 《黃石公素經》, 《琴譜合璧》, 《太古遺音》, 《榮根譚》, 《金瓶梅》 등을 번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滿漢西廂記》는 康熙47년(1710년) 간행되었고 이 시기는 淸朝에서 한창 여러 소설에 금서 조치를 내린 1652년, 1663년, 1687년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번역이 1710년 나온 것도 이 시기를 피한 것으로 보이며 번역자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것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西廂記》의 만주어 번역본에는 대부분 序文이 있고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눈에 띄는 것은 서문 끝에 'elhe taifin i dehe uyuci aniya, aniya biyai sain inenggi(康熙四十九年 正月吉旦)'라고 기록한 것과 'abkai wehiye i gūsici aniya niyengniyeri sain inenggi-乾隆三十年春吉日'라는 기록이다. 이를 통해 판본 간행 시기는 명확한 확인이 가능하다. 이 외에 동경대학도서관 소장본은 고유명사 표기를 하는데 詩詞는 'si ts'y' 文章은 'wen jang' 經傳은 'ging juwan'과 같이 음역하고 있는데 대만 국가소장본은 詩詞는 'irgebun uculen' 文章은 'šu fiyelen' 經傳은 'nomun ulabun'과 같이 의역하고 있다.

동경대본 《滿漢西廂記》의 저본은 金聖嘆批點 《西廂記》이다. 《滿漢西廂記》가 4책 16出(juwan ninggun meyen)로 구성된 것이 金聖嘆본이 4책, 한 책당 4章으로 구성 되어있는 것과 일치한다.<sup>9)</sup> 明本과 《滿漢西廂記》에 기록된 한문과는 큰 차이가 있고 金聖嘆본과 거의 일치하는 것을 통해 金聖嘆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滿漢西廂記》가 明本이 아닌 金聖嘆본을 저본으로 한 이유는 실제 중국에서 明本 보다는 金聖嘆본의 크게 유행한 것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예견된다. 이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통해 당시 문단의

類第六.

9) 다만 5장과 14장의 제목이 金聖嘆본은 寺警과 拷紅으로 되어 있는데 《滿漢西廂記》에는 警寺, 拷髻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다르다.

분위기 및 만주족의 취향 등이 가늠될 수 있을 것이다.

만주어로 번역된 작품을 감상하는 것은 만주족이 한족 문학을 향유한 역사와 한어와 만주어의 언어접촉과 문화접촉을 다른 각도에서 조명하는 방편이다. 동아시아의 언어교류와 민족 언어 흥망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제언어의 융합과 영향이 일어났음은 재언이 여지가 없다. 이것이 《滿漢西廂記》가 번역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또 《滿漢西廂記》의 번역은 만주족은 왜 《西廂記》를 번역하였으며 이 번역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고 이 번역서들은 중국 문학전파에 어떤 기여가 있었는지에 대한 연구와 조사에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 2.2 《滿漢西廂記》 주석과 번역

[만문전사]

si siyang gi bithei sioi.

muduri<sup>10)</sup> nirugan be fukjin neime. bithe cagan minggan jalan-i ferguwecuke tuwakū ome banjinaha. gasha-i songko be tuktan alhūdame. hergen jijun<sup>11)</sup> tanggū aniyai wesihun baita be siraha. wen jang de han' gurun<sup>12)</sup> wei gurun be tukiyerengge. ulhiyen-i irgebun yoro de haminaha turgun. ši oci jin gurun tang gurun de yongkiyafi.tereci banjibume ucun<sup>13)</sup> mudan de hafumbuhabi. pan an be giyang ni adali. lu gi be mederi gese sehengge. fi de funcetele hojo ba bifi.. sung ioi be saikan. ban gu be amtangga sehengge. ulaha baita ferguwecuke arbungga

10) 《滿漢西廂記》에는 龍에 대해서 'muduri'과 같이 번역하기도 하고 'lung'와 같이 음역하기도 하였다.

11) hergen jijun: '글자 획'이란 뜻으로 翰墨에 대한 번역이다. 翰墨은 文翰과 筆墨으로 글을 짓고 쓰는 것을 의미한다.

12) 《滿漢西廂記》에는 漢에 대해서 'han' 과 같이 음역하기도 하고 nikan이라 번역하기도 하기도 하였다.

13) 《滿漢西廂記》에는 서문의 詞, 歌曲과 본문의 唱, 科 등을 모두 'ucun-노래 혹은 uculembi-노래하다'로 번역하고 있다.

turgun.. tuttu hehe jusei ser sere gūnin be tucibume ts'ui jang<sup>14)</sup> ni fe baita be arara de. embici fakcabume. embici acabume. banjibume gamahangge dzo ši gu liyang ni wen jang ohobi. eici gidame. eici tukiyeme. fulgiyeme ficara be miyao yamun-i bolgo kumun ibuleci ombi. guwe fung<sup>15)</sup> be.. dursuleme ya sung be alhūdaha bime.geli aldungga be gaimice be temgetulehebi. gecuheri junggin be jalu saraha gese. irgebure niyalmai<sup>16)</sup> angga de amtangga<sup>17)</sup> oho. nicuhe gu be hiyahanjame yashalaha adali. bithesi saisa-i gūnin narašambi. tuttu seme šuwaselaha folohongge. damu nikan hergen-i teile dabala. gingsire uculere urse. manju bithe be bahafi sahakū. uttu offi gingguleme bithe hiyadan-i fe debtelin be. wesihun jalan<sup>18)</sup>-i gisun mudan-i ubaliyambuha. jakūn kooli ninggun durun<sup>19)</sup> be fulehe da obure jakade. jijun mangga bime gūnin be akūmbuha. koki<sup>20)</sup> hergen gashai bithe<sup>21)</sup> be kūbulibume ubaliyambure jakade. gisun getuken bime baita iletulehe. ere ucin be yala menggun-i ucehen selei jijun<sup>22)</sup> de. muduri tasha be funiyehe dubede tucibuhe. šu ba-i hoošan jarin-i behe de. ijifun niyehe be fi-i fejile yabubuha seci ombi. tuttu faksi de

- 14) ts'ui jang: 崔張을 음역하여 만주어로 표기한 것으로 崔鶯鶯과 張君瑞를 뜻한다.  
 15) guwe fung: 詩經의 國風을 표기한 것으로 민요를 의미한다.  
 16) irgebure niyalmai: '시인'이라는 뜻으로 한문은 '騷人'이라 기록되어 있다. 屈原의 離騷賦 중 '騷人墨客'에서 나온 말로 시인과 문사를 뜻한다.  
 17) angga de amtangga: '입에서 재미있는'이라는 뜻으로 '膾炙-사람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게 되다.'에 대한 번역이다.  
 18) wesihun jalan: '귀한 세대'라는 뜻으로 '熙朝-잘 다스려진 시대'에 대한 번역이다.  
 19) jakūn kooli ninggun durun: '여덟 가지 법과 여섯 가지 서법'을 의미하며 八法六書에 대한 번역이다.  
 20) koki hergen: kokingga fukjingga hergen: 蝌蚪書 (顛頊高陽氏가 울챙이 모양을 모방하여 만들어낸 글자체, 고대 竹簡에 漆書할 때 이 글자체를 사용했음)  
 21) gashai bithe: gashangga fukjingga hergen: 鳥書篆(周 文王과 武王 때 나타난 붉은 새를 본떠서 만들었다는 전서체)  
 22) menggun-i ucehen selei jijun: '은의 고리와 철의 획'이란 뜻으로 '鐵畫銀鉤'-필력이 대단함을 문자의 견고함과 무게가 쇠와 같고 그 활력이 은과 같다. 고 표현한 蘇軾의 말을 번역한 것이다.

afabufi. undehe<sup>23)</sup> de folofi enteheme tutabuha. manju<sup>24)</sup>-i erdemungge niyalma. afaha saramе gūnin selambi sere anggala. mederi dorgi gebungge urse. dohton be neime urgun-i cira tuyembumbi dere. elhe taifin<sup>25)</sup>-i dehi uyuci aniya. aniya biyai sain inenggi..

[한문]

西廂記序

龍圖既啓, 縹緗成千古之奇觀, 鳥跡初分, 翰墨繼百年之勝事. 文稱漢魏, 洒漸及乎風賦, 詩傳晉唐. 爰遞通於詞曲, 潘江陸海, 筆有餘妍, 宋艷班香, 事傳奇態, 遂以兒女之微情, 寫崔張之故事. 或離或合, 結構成左穀文章, 爲抑爲揚, 鼓吹比廟堂清奏, 既出風而入雅, 亦領異而標新, 錦繡橫陳, 膾炙騷人之口, 珠璣錯落, 流連學士之裏. 而傳刻之文, 祇從漢本, 謳歌之子, 未覩清書, 謹將鄴架之陳編, 翻作熙朝之別本, 根柢于八法六書, 字工而意盡, 變化<sup>26)</sup>乎蝌文鳥篆, 詞顯而意揚. 此曲誠可謂銀鈎鐵畫, 見龍虎于毫端, 蜀紙麝煤, 走鴛鴦于筆底. 付之剞劂以壽棗梨, 既使三韓才子, 展卷情怡, 亦知海內名流, 開函色喜云爾.

康熙四十九年正月吉旦

[대역]

서상기 책의 서문

河圖를 처음으로 펼치니 책이 1,000대의 기이한 일이 되어 나타났다. 새의 발자국을 처음으로 본뜨고 쓰는 것이 100년의 귀한 일을 이었다. 문장에 있어 한(漢)나라와 위(魏)나라를 만드는 것은 점점 민요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詩는 진(晉)나라와 당(唐)나라에서 생겨난 후, 그로부터 짓고 詞曲(사곡)에 이르게

23) undehe: '목판'을 의미하면 한문은 '棗梨'(판목에 흔히 쓰는 대추나무와 오얏나무)라 기록되어 있다.

24) manju: 한문은 '三韓'이라 기록되어 있다.

25) elhe taifin: '평안하고 태평한'이라는 뜻으로 '康熙'에 대한 번역이다.

26) <滿漢西廂記>에는 花로 오기 되어 있다.

되었다. 반안(潘安)을 강 같다 하고, 육기(陸機)를 바다 같다고 한 것은 붓에 남을 만큼 아름다운 바가 있어서이고 송옥(宋玉)이 아름답고 반고(班固)가 향기롭다고 한 것은 전한 일이 진기하고 훌륭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자아이들의 세심한 마음을 나타내려고 최장(崔張)의 이야기를 엮을 때 혹 헤어지게 하고, 혹 만나게 하며, 엮어 가진 것이 좌씨(左氏)와 곡량(穀梁)의 문장이 되었다. 혹은 누르고 혹은 올리면서 불고 연주하는 것을 사찰 방의 맑은 음악과 비교할 수 있다. 국풍(國風)을//따르고 아송(雅頌)을 본받았고 또 다름을 가져 새로움을 드러냈다. 망단(과) 금단을 가득 펼친 것처럼 시 짓는 사람의 입에서 재미있게 뱉다. 진주(와) 옥을 가로세로로 짠 것 같다. 학자들의 마음은 아쉬워한다. 그렇지만 배긴 것과 새긴 것은 그저 한자뿐이다. 읊고 노래하는 사람들은 만주 글을 얻고 알지 못했다. 그러므로 삼가 책장의 낡은 책자를 귀한 세대의 말로 번역했다. 팔법육서(八法六體)를 근본으로 하므로 자획이 훌륭하며 뜻을 다 했다. 과문조적(蝌文鳥迹)을 변화시킬 때 말이 분명하고 사건이 뚜렷했다. 이 노래를 정말 철화은구(鐵畫銀鉤) 필획으로, 용(龍)과 범을 붓끝에 드러냈다. 촉(蜀) 땅의 종이(와) 사향(麝香)의 먹으로 원앙을 붓의 아래 다니게 한 것과 같다. 그래서 장인(匠人)에게 넘기고, 목판에 새긴 후 영원히 남게 했다. 滿洲의 덕 있는 사람이, 한 면을 열면 마음이 후련하다고 할 뿐만 아니라, 바다 안에 이름난 사람들이, 덮개를 열면, 즐거운 얼굴(을) 드러낼 것이다. 강희(康熙) 마흔아홉 번째 해, 정월 좋은 날.

[만문전사]

manju nikan si siyang gi bithe. ujui debtelin.<sup>27)</sup>

uheri juwan ninggun meyen.<sup>28)</sup>

27) 만주어로 번역 된 문학 작품은 한문 제목을 만주어로 음역하고 뒤에 bithe(글, 책)을 붙인다. 《滿漢西廂記》도 manju nikan si siyang gi bithe.라 번역되어 있다.

28) meyen과 fiyelen은 책의 篇, 章, 글의 단락 등 문장의 한 마디, 節 등을 뜻 하는데 出은 meyen으로 章은 fiyelen으로 번역했다. 참고로 《滿文金瓶梅》는 回를 fiyelen으로 번역했다.

hojo de nioroko ujui fiyelen<sup>29)</sup>.  
tatara boo be baiha jai fiyelen.  
mudan de acabuha ilaci fiyelen.  
doocan be fuhūraha duici fiyelen.

[한문]

滿漢西廂記

共十六出

驚艷第一章

借廂第二章

酬韻第三章

鬧齊第四章

[대역]

만한서상기글 첫 책.

모두 열여섯 마디.

아름다움에 홀렸다. 첫 번째 장

목을 집을 구했다. 두 번째 장.

소리에 화답했다. 세 번째 장.

절에서 장난쳤다. 네 번째 장.

[만문전사]

hojo de nioroko ujui fiyelen.

fu žin. ing ing. hūng niyang. hūwan lang be gaifi wesifi hendume.

sakda beye hala jeng. eigen-i hala ts'ui. siyang guwe-i tušan de isinafi.

29) 驚艷第一章에서 '후'를 fiyelen으로 번역하고 '文章' 등을 번역 할 때는 'wen jang'이라 쓰기도 했다.

kesi akū nimeme akū oho.<sup>30)</sup> ere sargan jui be teile<sup>31)</sup> ujihabi. ajige gebu<sup>32)</sup> ing ing. teni juwan uyun se bicibe. ifire šeolere galai weilen. ši tsi. bithe. bodon be bahanarakūngge akū. siyang gung ni bisire fonde. ini dancan jeng šangšu-i ahūngga jui jeng heng de angga aljaha bihe.<sup>33)</sup> sinagan jalukakū ofi. holboro unde. ere ajige sargan jui. ajigen ci sargan jui be eršehengge. gebu hūng niyang.. ere haha jui be. hūwan lang sembi. meni siyang gung. juse hūwašarakū<sup>34)</sup> turgun de. gaifi ujihengge. siyang gung jalan ci aljafi. sakda beye. jusei emgi giran be//gamame. bo ling ni bade isibufi burkiki seci. jugūn-i andala<sup>35)</sup> hanggabufi. julesi geneme muterakū.. ho jung fu de isinjifi. giran be taka pu gio sy<sup>36)</sup> de sindaha.. ere sy serengge. tiyan ce gin luwen. u dze tiyan niyang niyang ni hesei weilebuhe gung erdemu okini sehe miyao. jang loo fa ben serengge. meni siyang gung ni booci tucibuhe hūwašan. uttu ofi sy-i šun tuhère ergide encu weilehe ere emu falga boo bi.. cihai teci baktambi. mu derei ging hecen de. jeng heng be ganame jasifi. sasa karmame bo ling de mariki sembi.. bi gūnici siyang gung bisire fonde. jeci jalu tukiye. dahaha urse ududu tanggū<sup>37)</sup> bihe..te hanci niyaman damu ere udu anggala teile. absi usacuka.. [siyan lioi]{šang hūwa ši}{fu žin-i ucun} boigoji ejen. ging hecen de kesi //

30) akū oho: 없게 되다. '죽었다.'는 의미이다.

31) teile: -뿐, 만.-대로, -만큼, 껏, 혼자, 독자적으로라는 의미가 있으며 본 번역에서는 '-만'으로 해석하였다.

32) ajige gebu: 만주어로 '어린아이 이름'으로 번역하고 있으며 兒名을 의미한다.

33) angga aljaha bihe: '입 떠나게 하다.'는 의미로 '허락하다, 승낙하다.'는 뜻이다. 《滿漢西廂記》에서는 '결혼을 허락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34) hūwašmbi: 성취하다, 이룩하다, 완성된다, 성장하다. juse hūwašarakū는 아들을 이루지 못하다는 의미로 생긴 아들을 얻지 못했음을 뜻한다.

35) jugūn-i andala = jugūn andala - 길의 도중에, 가는 길에

36) 절의 번역은 'sy(寺)'와 'miyao(廟)'가 규칙성 없이 혼재되어 쓰였다.

37) ududu tanggū: 《滿漢西廂記》에는 '많은 백'으로 번역되어 있으며 '수 백'을 이와 같이 표현하고 매우 많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akū dubefi. eme jui anggasi umudu. jugūn-i andala mohoho. giran be miyao-i boode<sup>38)</sup> sindafi. bo ling ni eifu falan be erehe seme isinarakū. fir seme senggi songgome.<sup>39)</sup> du giowan gasha-i adali fularakabi. te dubei niyengniyeri erin ofi. niyalma absi šadashūn. hūng niyang si tuwana. julergi hūwa de niyalma akū oci. siyoo jiyei-i emgi dartai mujilen be tookabume<sup>40)</sup> sarašame ilicaki. hūng niyang jabume. je..[mudan-i amargi<sup>41)](ing ing ni ucun) lak seme dubesilehe niyengniyeri<sup>42)</sup> be pu //giyūn-i dergide nashūlabufi. simacuka miyoo-i dolo uce dasifi. dabkūrilame sidehulehe. ilha sigafi mukei eyen jaksakabi. baitakū jobocun šašanji. umaiserakū<sup>43)</sup> dergi edun de gasambi. fu žin. ing ing. hūwan lang. hūng niyang be gaifi mariha. jang šeng. kin tung be gaifi wesifi hendume. buya bithei niyalma hala jang. gebu gung. tukiyehe gebu giyūn šui. fe susu wargi lo<sup>44)</sup>-i niyalma. nenehe niyalma drolon-i jurgan-i šangšu hafan bihe. buya bithe-i niyalma gung gebu acabuhakū ofi. duin dere de sula yabumbi. te jing jen yuwan-i//</sup>

38) miyao-i boode: '절의 방'이라는 의미로 梵王宮에 대한 번역이다. 梵王宮은 大梵天이 머무는 궁이나 절이나 불당을 지칭한다.

39) 血淚灑·피눈물 흘리다는 의미이며 《滿漢西廂記》에는 'senggi songgome-피 흘리니'로 번역되어 있다.

40) tookabumbi: tookambi의 사동형으로 지체시키다, 지연시키다, 시간이 걸리게 만들다, 막다, 방해하다, 잘못되게 하다. 어긋나게 하다. 원한을 품다. 근심을 품다. 라는 의미로 쓰일 수 있다. 《滿漢西廂記》에서는 '근심을 품다-마음 놓고'라는 의미로 풀이하였다.

41) 後는 詞曲에서 餘聲, 즉 후렴구를 의미한다. 《滿漢西廂記》에서는 'mudan-i amargi-곡의 뒤'라 번역하고 있다.

42) 《滿漢西廂記》에서 日暮은 'dubei niyengniyeri-늦 봄'으로 殘春은 dubesilehe niyengniyeri-쇠잔해진 봄'으로 번역되어 있다.

43) umaiserakū: 'umai - 결코, serakū-말 없이'로 umai serakū와 같이 띄어 써야 한다.

44) 《滿漢西廂記》에는 西洛만 'wargi lo' 즉 '서쪽의洛'으로 번역하고 있고 《滿漢西廂記》 다른 지명은 모두 음역하고 있다.

[한문]

夫人引鶯<sup>45)</sup>紅娘歡郎上云 老身姓鄭 夫主姓崔. 官拜當朝相國. 不幸病薨 祇生這個女兒. 小字鶯<sup>46)</sup>工. 針黹<sup>46)</sup>女工. 詩詞書算. 無有不能. 相公在日. 曾許下老身侄兒鄭尙書長子鄭恒爲妻. 因喪服未滿. 不魯成合. 這小妮子 是自幼伏侍女兒的. 喚做紅娘. 這小廝兒. 喚做歡郎. 是俺相公討來壓子息的 相公棄世. 老身與女孩兒扶柩往博陵安葬. 因途<sup>47)</sup>路有阻. 不能前進. 來到河中府. 將靈柩<sup>寄</sup>在普救寺內. 這寺乃是天冊金輪武則天娘<sup>48)</sup>勅賜盖造的功德院 長老法本 是俺相公剃度的和尚 因此上有這寺西邊一座另造宅子足可安下. 一壁寫書附<sup>48)</sup>京師 喚鄭恒來. 相扶回博陵去. 俺想相公在日. 食前方丈. 從者數百. 今日至親則 只這三四月兒. 好生傷感人也呵. 【仙侶】 【賞花時】 【夫人唱】 夫主京師祿命終. 子母孤孀途路窮. 旅櫬在梵王宮. 盼不到博陵舊塚.<sup>49)</sup> 血淚灑杜鵑紅.

今日暮春天氣. 好生困人. 紅娘你看前 邊庭院無人. 合小姐閒散心立一回去. 紅娘云 曉得 【後】 【鶯<sup>50)</sup>工唱】 可正是人值殘春蒲郡東. 門掩重關蕭寺中. 花流水流紅. 閑愁萬種. 無語怨東風. 夫人引鶯<sup>45)</sup>紅娘下<sup>51)</sup>張生引琴童上云 小生姓張名珙 字君瑞. 本貫西洛人也. 先人拜禮部尙書. 小生功名未遂. 遊於四方. 卽今貞元

[대역]

아름다움에 홀리다 첫 번째 장.

부인이 앵앵(鶯鶯)과 홍낭(紅娘), 환랑(歡郎)을 데리고 올라와 말하기를 늙은 몸 성이 정(鄭)이다. 남편의 성은 최(崔)이고, 相國의 자리에 이른 후 온 없어 병으로 세상 떠났다. 이 딸아이만 키웠다. 아이 때 이름은 앵앵이고 이제 열아홉 살이지만 겁고 수놓는 손일(과), 시(詩), 사(辭), 글, 셈을 하지 못하는

45) 金聖嘆批點 《西廂記》는 반드시 鶯鶯으로 기록 《滿漢西廂記》는 모두 鶯<sup>工</sup>로 기록하고 있다.

46) 金聖嘆批點 《西廂記》에는 指라 기록되어 있다.

47) 金聖嘆批點 《西廂記》에는 道라 기록되어 있다.

48) 金聖嘆批點 《西廂記》에는 付라 기록되어 있다.

49) 金聖嘆批點 《西廂記》에는 冢라 기록되어 있다.

50) 이 부분을 제외하고 《滿漢西廂記》 전체에 鶯<sup>工</sup>로 기록되어 있다.

51) 金聖嘆批點 《西廂記》에는 夫人引紅娘歡郎下라 기록되어 있다.

것이 없었다. 상공(相公)이 있을 때 나의 친정 정상서(鄭尙書)의 맏아들 정항(鄭恒)에게 승낙했다. 상이 끝나지 않아서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 이 어린 여자아이는 어려서부터 딸아이를 시중드는 아이이고 이름은 홍낭(紅娘)이다. 이 남자아이는 환낭(歡郎)이라 한다. 우리 相公이 아이들이 다 크지 못했기 때문에 데려다 키운 것이다. 相公이 세상에서 떠난 후 늙은 몸이 아이들과 함께 주검을//가지고 박릉(博陵)의 땅에 보내서 안장하고자 하려는데 길의 도중에 막혀서 앞으로 가지 못했다. 하중부(河中府)에 이르러서 주검을 잠깐 보구사(普救寺)에 두었다. 이 절은 천책금륜(天冊金輪), 무측천(武則天) 낭낭(娘娘)의 칙령으로 지은 공덕 되기 바라고자 한 절이다. 장노(長老) 법본(法本)이라는 이는 우리 相公의 집에서 출가한 스님이다. 그러므로 절의 해가 지는 쪽에 따로 지은 이 한 채 집이 있다. 마음대로 살 수 있다. 한 편으로 경성(京城)에서 정항(鄭恒)을 데려오려고 (편지)보낸 후, 함께 호위하여 박릉(博陵)에 돌아가고자 한다. 내가 생각하니 상공(相公) 계실 때 먹으면 가득 올리고 따르던 사람들이 많은 100이 있었다. 지금 가까운 친척 다만 이 몇 식구뿐이다. 얼마나 슬프겠는가. 【仙侶(선려)】 【賞花時(상화시)】 【夫人의 노래】 주인이 경성(京城)에서 운//없이 돌아가고 어미 자식 과부 고아, 길의 도중에 힘이 다 빠졌다. 주검을 절의 방에 두고 박릉(博陵)의 묘지를 바라보았지만 이르지 못한다. 몹시 슬피 피(눈물) 흘리니 두견(杜鵑)새와 같이 빨개졌다. 지금은 늦은 봄 시절이니 사람이 얼마나 노곤한가. 홍낭(紅娘) 네가 보러 가라. 앞쪽 정원에 사람이 없으면 아가씨와 함께 잠깐 마음 놓고 구경하며 머물자. 홍낭(紅娘)이 답하길, '네. [후렴구] [鶯鶯의 노래] 마침 끝자락의 봄을 포군(蒲/郡)의 동쪽에서 때마침 만나니 조용한 사찰의 안쪽 문 닫고 여러 겹으로(빗장) 걸었다. 꽃이 저서 물에 흘러 물들었다. 괜한 걱정이 몰려오니 말없이 동쪽 바람만 닦한다. 夫人이 앵앵(鶯鶯), 환낭(歡郎), 홍낭(紅娘)을 데리고 돌아갔다. 장생(張生)이 금동(琴童)을 데리고 올라와 말하길, 소생은 성이 장(張)이고 이름이 공(珙)이다. 자(字)는 군서(君瑞)이다. 본관은 서락(西洛) 사람이다. 선인은 예부(禮部)의 상서(尙書) 벼슬에 있었다. 서생 이 사람은 공명 따르지 않기 때문

에 사랑으로 한가로이 다닌다. 지금 마침 정원(貞元)의//

[만문전사]

juwan nadaci aniya juwe biyai icereme oho. ging hecen de simneme genembi. jugūn-i ildun ho jung fu de emu fe gucu bi. hala du. gebu kiyo. tukiyehe gebu giyūn ši. mini emu giyūn. emu tacikū de bihe. ahūn deo arame jurgan-i falihabi. amala bithe be waliyafi cooha be tacifi. uthai coohai juwang yuwan baha. wargi be dailara amba yuwan šuwai<sup>52)</sup> obufi. juwan tumen-i amba cooha be gaifi. ne pu guwan furdan de seremšeme tuwakiyahabi. bi ahūn be baime tuwanafi. jai ging hecen de geneci inu goidarakū. bi gūnici juciba tuwa nimanggi elden de bithe tuwame. hefeli jalu wen jang<sup>53)</sup> taciha bime. kemuni bigan tala de gengge gangga yabumbikai<sup>54)</sup>. maka atanggi amba gūnin de acabure biheni.. yala tumen yan-i boobai loho de bolori muke<sup>55)</sup> somibuhabi. morin niša niyengniyeri jobocun šeolehe enggemu be gidahab i<sup>56)</sup>..//[siyan lioi][diyan giyang cun][jang šeng ni ucun] jung yuwan de erdemu tacinjifi. bethei guye siderebuehekū suku-i fuhešere adali. hargašara yasa. abka be karaci. šun hanci cang an goro biheni.. [hūn

52) 《滿漢西廂記》에서는 征西大元帥(정서대원사)를 wargi be dailara amba yuwan šuwai-서쪽을 정벌하는 큰 원수'라 풀이하여 번역하고 있다.

53) hefeli jalu wen jang: '滿腹文章'에 대한 번역으로 '문장이 배 가득하다.' 즉 많은 글을 익혔다는 의미이다. 元 白朴의 《牆頭馬上》: 他凭着滿腹文章七步才, 管情取日轉千階에서 유래한다.

54) 湖海飄零(천하를 떠돈다.)을 《滿漢西廂記》에서는 'bigan tala de gengge gangga yabumbikai-들판에서 쓸쓸히 다닌다.'라고 번역하고 있다. 'gengge gangga'는 상태어로 몽골어 'genggūn gūnggūn'에서 왔다. 'genggūn gūnggūn'는 안착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돌아 다니는 모양, 고독한 모양, 외롭고 고생스러운 모양을 나타낸다.

55) bolori muke: 秋水에 대한 번역으로 '가을 물'로 번역 되어있다. '시퍼렇게 날이 서 번쩍거리는 칼빛'을 뜻한다.

56) 壓을 gidahabi로 번역하고 있는데 gidambi는 강요하다, 억누르다, 누르다, 은닉하다, 알을 품다, 격과하다, 낙인찍다. 등의 뜻이 있다. '누르다'는 뜻을 취해 '말 안장에 눌러앉다.'로 번역했다.

giyang lung] ši šu ging juwan' de forohoci. du ioi<sup>57)</sup> umiyaha gese  
 tucirakū facihiyašeme silhime<sup>58)</sup> šorgiha. bula jafaha kūwaran de tehei  
 dubike.<sup>59)</sup> sele-i yuwan be. suihei fondojo. tugi jugūn peng ni on  
 uyun tumen bade<sup>60)</sup> isinanggalā. neneme//nimanggi fa. juciba elden de.  
 juwan aniya funceme joboho. erdemu wesihun ofi. albatu niyalmai  
 gūnin de dosinarangge mangga. erin fudasi de haha niyalmai gūniha de  
 acaburakū. si eici lakcaha šusihe edelehe fiyelen<sup>61)</sup> de gūnin be  
 wacihiyame. mujilen sithūrakūci<sup>62)</sup> ombio. jing yabure dulimbade. aifini  
 hūwang ho birai ebele isinjihā. si tuwa absi gelecuke. [io hū lu] uyun  
 mudan-i edun colkon ya ba haksan seci. lak seme uba//gelecuke ni. ci.  
 liyang be hayame. cin. jin be hūwalame. io yan be hahūrahabi<sup>63)</sup>.  
 šanggiyan boljon. hūwai sere untuhun de burašame. abkai buten de  
 bolori tugi hetembi. cuse moo-i gūsu futai dekdeku kiyoo be  
 kudehengge. mukei oilo niowanggiyan muduri deduhe adali. dergi wargi  
 uyun jeo be fondolome. julergi amargi tanggū bira be  
 hafumbumbi. marire cuwan-i hahi. hahi akū be aide sambi seci. uthai

57) du ioi: '쫴벌레'를 뜻하며 여기서는 책벌레의 의미로 쓰였다. 한문은 '蠹魚'라 기록되어 있다. 明 胡應麟의 《小室山房筆叢》: 枕席經史, 沉湎青絳, 却掃閉關, 蠹魚에서 유래한다.

58) silhime: silhimbi는 한 곳을 공격하다. 집중 공격하다. 화살촉을 화살대에 끼우다라는 뜻으로 《滿漢西廂記》에서는 '연구하다'라는 의미로 쓰였다.

59) 守煖-'앉은 자리를' 따뜻하게 지켰다.'는 것은 '앉은 자리가 따뜻해지도록 오래 앉아 있었다.'는 의미로 《滿漢西廂記》에서는 'tehei dubike.-앉아 있는 것이 익숙해진.'으로 번역하고 있다.

60) tugi jugūn peng ni on uyun tumen bade: 雲路鵬程九萬里에 대한 번역으로 뜻이 원대함을 의미한다. 《莊子 逍遙遊》: 鵬之徒於南冥也 水陸三千里, 搏扶搖而上者九万里에서 유래한다.

61) lakcaha šusihe edelehe fiyelen: 斷簡殘篇에 대한 번역으로 완전하지 않은 글이나 문서 등을 의미한다.

62) gūnin be wacihiyame. mujilen sithūrakūci: 생각을 다해 전념하지 않다는 의미로 雕蟲篆刻에 대한 번역으로 '잔재주라는 뜻으로, 남의 글귀를 따다가 맞추는 서투른 재간 또는 문장을 짓는 데에 있어 너무 글귀만을 수식하는 일'을 뜻한다. 漢 揚雄의 《法言·吾子》或問: 吾子少而好賦, 曰: 然 童子雕蟲篆刻에서 유래한다.

63) hahūrahabi: '목을 잡다, 계속 억누르다, 군사적 요지를 장악하다.'는 뜻이다. 《滿漢西廂記》에서는 '황하 같은 험한 강이 幽燕 땅을 끌어안아 둘러싸고 있는 형세'를 뜻하고 있다.

nu sirdan//uli ci fithebuhe adali.

[한문]

十七年二月上旬 欲往<sup>64</sup>) 上朝取應 路經河中府. 有一故人 姓杜名確. 字君實. 與小生同郡同學. 曾爲八拜之交. 後棄文就武. 遂得武舉狀元. 官拜征西大元帥. 統領十萬大軍. 現今鎮守蒲關. 小生就探望哥乚一遭. 却往京師未遲. 暗想小生螢牕雪案. 學成滿腹文章. 尙在湖海飄零. 未知何日得遂大志也呵<sup>65</sup>). 正是萬金寶劍藏秋水. 滿馬春愁壓繡鞍. 【仙侶】 【點絳脣】 【張生唱】 遊藝中原. 脚根無線如蓬轉. 望眼連天. 日近長安遠. 【混江龍】 向詩書經傳. 蠹魚似不出費鑽<sup>66</sup>) 研. 棘圍呵守煖. 鐵硯呵磨穿. 投至得雲路鵬程九萬里. 先受了雪窗螢火十餘年. 才高難入俗人機. 時乖不遂男兒願. 怕你<sup>67</sup>) 不空雕蟲<sup>68</sup>) 篆刻<sup>69</sup>) 斷簡殘篇. 行路之間 早到黃河這邊 你看好形勢也呵. 【油葫蘆】 九曲風濤何處<sup>70</sup>) 險. 正是此地偏. 帶齊梁分秦晉隘<sup>71</sup>) 幽燕. 雪浪拍長空. 天際<sup>72</sup>) 秋雲捲. 竹索纜浮橋. 水上蒼龍偃. 東西貫九州. 南北串百川. 歸舟緊不緊如何見. 似弩箭離絃.<sup>73</sup>)

[대역]

열 일곱째 해 이월의 상순이 됐다. 경성(京城)에 시험 보러 간다. 길 가는 중에 하중부(河中府)에 한 옛 친구 있다. 성은 두(杜) 이고 이름은 확(確)이다. 높임 이름은 군실(君實)이다. 나와 한 고향이다. 한 학교에 있었다. 형제 삼아 의리 맺었었다. 후에 글을 버리고 군사를 공부하자 바로 군사의 장원(壯元) 되

64) 金聖嘆批點 《西廂記》은 往이라 기록되어 있다.

65) 金聖嘆批點 《西廂記》에는 呵자가 없다.

66) 金聖嘆批點 《西廂記》에는 鑽이라 기록되어 있다.

67) 金聖嘆批點 《西廂記》에는 爾라 기록되어 있다.

68) 金聖嘆批點 《西廂記》에는 虫이라 기록되어 있다.

69) 金聖嘆批點 《西廂記》에는 刻이라 기록되어 있다.

70) 金聖嘆批點 《西廂記》에는 處라 기록되어 있다.

71) 金聖嘆批點 《西廂記》에는 隘라 기록되어 있다.

72) 金聖嘆批點 《西廂記》에는 際라 기록되어 있다.

73) 金聖嘆批點 《西廂記》에는 弦라 기록되어 있다.

었다. 서쪽을 정벌하는 큰 원수 되고 십 만의 큰 군사를 거느리고 이제 포관(蒲關) 요새에서 방어하면서 지키고 있다. 내가 형을 찾아보러 간 후 다시 경성(京城)으로 가도 역시 늦지 않는다. 내가 생각하니 반딧불이 불, 눈 (의) 빛으로 책 보면서 배에 온통 文章 배웠거늘 항상 들판에서 쓸쓸히 다니는구나. 과연 언제 큰 뜻이 풀릴 것인가? 참으로 만냥(萬兩)의 보검이 가을 물에 감춰져 있다. 말 가득 봄날 걱정이 수를 놓은 안장을 눌렀다.// 【仙侶】 【點絳脣】

【張生의 노래】 중원(中原)에서 재능 배우러 오니 발의 뒤꿈치 얽매이지 않고 쏙이 튕구는 것 같다. 우리러보는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니 해는 가깝고 장안(長安)은 멀리 있네. 혼강룡 【混江龍】 詩, 書, 經, 傳에 향하여 두어(蠹魚) 같이 나오지 않고 열심히 연구했다. 가시나무 두른 울타리에 앉는 것도 익숙해졌다. 쇠로 된 벼루(와) 가죽끈에 구멍이 났다. 구름 길과 봉(鵬)의 노정이 구만 리에 이르기 전에 먼저//눈 창문과 반딧불 빛에서 십 년 넘게 고생했다. 재주가 높아져서 속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고 때가 어긋나 사내 사람이 생각한 바를 이루어지게 하지 않는다. 네가 혹시 끊긴 목간과 모자란 단락에 생각을 다 하고 마음 집중하지 않아도 되는가? 마침 가는 중간에 벌써 황하(黃河)강의 이쪽에 이르렀다. 너 보아라 얼마나 험악한가. 【油葫蘆】 아 흠 굽이의 바람과 파도가 어디가 흉악하냐고 하면 바로 여기//험하다. 제(齊), 양(梁)을 두르고, 진(秦), 진(晉)을 가르고, 유연(幽燕)을 지켰다. 흰 파도가 괘괄거리며 허공으로 일고 하늘의 끝에서 가을 구름이 말아 든다. 대나무로 된 밧줄 끈으로 떠 있는 다리를 맨 것이 물의 위에 푸른 용이 누운 것 같다. 동쪽 구주(九州)를 꿰뚫고 남북 온 강을 지나간다. 돌아오는 배가 빠른지 안 빠른지를 어떻게 아는가 하면 바로 노(弩) 화살이//활시위에서 튕겨 난 것 같다.

[만문전사]

[tiyan hiya lo.] sunggari bira uyun abka ci wasika aise. den sekiyen. tugi cala lakiyabuhabi. dergi mederi de dosinarangge. ere jugūn ci aljarakū isinambi. lo yang ni minggan hacin-i ilha be fushubume. liyang

yuwan-i tumen delhe usin be simebumbi.. bi hono tuhan de tefi. šun biyai hanci isinaki sembi..gisurere sidende aifini hoton de dosika. ubade absi emu yebcungge tataara boo bi. kin tung morin gaisu sefi. diyan siyao el g'o aba serede//diyan hiyoo el hendume. juwang yuwan fang ni diyan hiyao el g'o serengge. mini beye.. guwan žin tataki seci. meni ubai boo bolgo.. jang šeng hendume. uthai ere ujui giyan de tataki.. siyao el g'o si ebsi jio. ere hūsime aika sarašaci acara ba bio. diyan siyoo el hendume. meni ubade emu pu gio sy sere miyao bi. tiyan ce gin luwen. u dze tiyan niyang niyang ni hesei ilibuha gung erdemu okini sehe miyoo. weilehe arahangge encu hacin. amasi Julesi duleme yabure urse. buyeme hargašarakūngge akū. damu tubade hono sarašaci ombi<sup>74)</sup>.. jang šeng hendume. kin tung. si aciha fulmiyen be siyan šeng aibici jihengge.. jang šeng hendume. buya bithei niyalma. wargi ebubu. morin de ulebu. bi tubade dartai geneki.. kin tung je sefi. gemu mariha<sup>75)</sup>.. fa ts'ung wesifi hendume. ajige hūwašan fa ts'ung bi. ere pu gio sy-i fa ben jang loo-i šabi<sup>76)</sup> inu. enenggi sefu doocan arara bade genehe. mimbe sy de//tutabufi. tuwanjire solinjire niyalma bici ejefi. sefu jihe manggi ala sehebi.. miyoo-i duka de ilifi tuwaki. ai niyalma jimbihe ni. jang šeng wesifi hendume. mudangga jugūn cib sere bade hafunambi. can tere boo ilha moo fik sembi.. dule isinjiha ni.. ishunde acafi. fa ts'ung hendume.

siyan šeng aibici jihengge.. jang šeng hendume. buya bithei niyalma. wargi lo baci ubade isinjiha. wesihun babe<sup>77)</sup> bolgo sulfa seme donjifi.

74) ombi는 '되다, 이다.' 라는 뜻이며 앞에 조사 ci가 있으면 '-할 수 있다.'라고 번역된다. 대역에서는 sarašaci ombi-'볼 수 있다'라고 번역되나, '볼 만 하다.'는 의미이다.

75) 《滿漢西廂記》에서는 '俱下-모두 (무대에서) 내려갔다.'를 'gemu mariha-모두 돌아갔다.'로 번역하고 있으며 무대 위에서 내려갔음을 의미한다.

76) šabi: 산스크리트어 śramaṇa에서 왔으며 '제자'라는 뜻이다.

77) 上利은 사찰을 높여 표현한 것으로 《滿漢西廂記》에서는 wesihun babe-'높은 이 곳'이라

emude oci fucihi de hargašame hengkileki<sup>78)</sup>. jaide oci jang loo de dorolome acaki sembi.. fa ts'ung hendume meni sefu boode akū. buya hūwašan serengge šabi fa ts'ung inu. siyan šeng. fang jang de dosifi cai omiki.. jang šeng hendume. jang loo akū oci tetendere. cai be joo. gelhun akū hūwašan de baiki. majige jorime gamafi hargašabureo.. fa ts'ung je sehe. jang šeng hendume. weilehe arahange yala sain mujangga..//[ts'un li ya gu] dergi<sup>79)</sup> ergi fucihi diyan be tuwaha. geli fejergi hūwašan-i hūwa de isinjiha. budai booi wargi ergi hancika. fa tang ni amargi. jung tungken-i leosei julergi. gūldun<sup>80)</sup> boode ilgašaha. boobai subargan de tafaka. mudaliha naggin be šurdeme akūmbuha. bi. lo han' be tolome wajiha. pu sa de hengkilehe. enduringge mergese de doroloho..cala absi emu amba hūwa. maka aiba biheni. buya bithei niyalma. inemene emgeri akūmbume tuwaki.. fa ts'ung ilibume hendume. tubade geneci//

[한문]

【天下樂】疑是銀河落九天 高源雲外懸 入東洋 不離此逕穿滋洛陽千種花 潤梁園萬頃田 我便要浮槎到日月邊 說話間早到城中 這里好一座店兒 琴童接了馬者 店小二哥那里 店小二云自家是狀元坊店小二哥 官人要下呵 俺這里有乾淨店房 張生云<sup>81)</sup>便在頭房住<sup>82)</sup>下 小二哥 你來 這里<sup>83)</sup>有甚麼閒散心處 小二云俺這里有座普救寺 是天冊金輪武則天娘<sup>84)</sup>勅建的功德院 盖造非常 南北往來過

번역했다.

78) hargašame hengkilembi - '朝見하여 叩頭하다, 朝拜하다.'는 의미로 <滿漢西廂記>에서는 '부처에게 참배하다.'는 의미로 쓰였다.

79) dergi는 동쪽, 위쪽, 왼쪽 높은, 지위가 높은 임금 등의 뜻이 있다. 대역에서는 金聖嘆批點 <西廂記>를 참고하여 적절한 뜻을 취했다. 이 부분에서는 위쪽으로 해석했다.

80) gūldun: 몽골어 Yuldung에서 왔다. 성문이나 교량 아래의 아치형 통로나 굴을 뜻한다.

81) 金聖嘆批點 <西廂記>에는 曰이라 기록되어 있다.

82) 金聖嘆批點 <西廂記>에는 裡라 기록되어 있다.

83) 金聖嘆批點 <西廂記>에는 裡라 기록되어 있다.

者. 無不瞻仰 只此處可以遊<sup>85)</sup>玩, 張生云琴童. 安頓行李. 撒和了馬. 我到那里走一遭<sup>86)</sup>. 琴童云理會得俱下. 法聰上云 小僧法聰. 是這普救寺法本長老的徒弟. 今日師父赴齋去了. 着我<sup>87)</sup>在寺中. 但有探望的. 便記着. 待師父回來報知.

山門下立地. 看有甚麼人來. 張生上云曲逕通幽處. 禪房花木深. 却早來到也. 相見科聽云先生 從何處來. 張生云小生. 西洛至此. 聞上刹清幽. 一來瞻禮佛像. 二來拜謁長老. 聰云俺師父不在. 小僧是弟子法聰的便是. 請先生方丈拜茶. 張生云既然長老不在呵. 不必賜茶. 敢煩和尚 相引<sup>88)</sup>. 瞻仰一遭. 聰云理會得.

張生云是盖造得好也. 【村裏迓高】 隨喜了上方佛殿. 又來到下方僧院. 廚房近西. 法堂北. 鍾樓前面. 遊洞房 登寶<sup>89)</sup>塔. 將迴廊繞遍. 我數畢羅漢. 參過菩薩. 拜罷聖賢. 那里 又好一座大院子 却是何處 待小生一~~先~~隨喜去 聰拖住云那里須去

[대역]

【天下樂】 은하수가 아홉 하늘에서 내려왔을 것이다. 높은 근원지가, 구름 저쪽에 걸려 있다. 동쪽 바다에 들어가는 것이 이 길에서 떠나지 않고 이른다. 낙양(洛陽)의 천 가지의 꽃을 피우고, 양원(梁園)의 만(萬) 이랑 밭을 적신다. 나도 뗏목에 앉아 해 달의 곁에 이르고 싶다. 말하는 사이에 벌써 성(城)에 들었다. 여기에 매우 한 근사한 목을 집이 있다. 금동(琴童)아 말 받아라 하고, 가게 심부름꾼은 어디 있는가? 라고 할 때 가게 심부름꾼이 말하길, 장원방(壯元坊)의 가게 심부름꾼이라는 이가 나 자신이다. 선생님이 목고자 하면 나의 여기의 방이 깨끗하다. 장생(張生)이 말하길 바로 이 첫 칸에 목자. 심부름꾼 너 이리 와라. 이 주변에 어떤 구경 다니기 적당한 곳이 있는가? 가게 심부름꾼이 말하길, 우리 여기에 한 보구사(普救寺)라 하는 사찰이 있다. 천책금륜(天冊金輪), 무측천낭낭(武則天娘娘)의 칙명(勅命)으로 세운 공덕 바라고자 했

84) 金聖嘆批點 《西廂記》에는 娘娘이라 기록되어 있다.

85) 金聖嘆批點 《西廂記》에는 遊라 기록되어 있다.

86) 金聖嘆批點 《西廂記》에는 造라 기록되어 있다.

87) 金聖嘆批點 《西廂記》에는 俺이라 기록되어 있다.

88) 金聖嘆批點 《西廂記》에는 因라 기록되어 있다.

89) 金聖嘆批點 《西廂記》에는 宝라 기록되어 있다.

던 절이다. 지은 것이 남다른 종류다. 남쪽 북쪽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사랑하고 아끼지 않는 바가 없다. 오로지 거기가 그나마 산책할 수 있다. 장생(張生)이 말하기를 금동(琴童)아 너 짐꾸러미를 내려라. 말에게 먹여라. 내가 거기에 잠시 갈 것이다. 금동(琴童)이 '예'라 하고 모두 돌아갔다. 법총(法聰)이 올라와 말하기를 소송 법총(法聰)이 나이다. 이 보구사(普救寺)의 법총(法本) 장노(長老)의 제자이다. 오늘 스승이 법사(法事)하는 곳에 갔다. 나를 절에 남게 하고, 보러오고 초대하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기억한 후 스승이 온 후 알리라고 말했다. 절의 대문에 서서 보자 어떤 사람이 왔느냐. 장생(張生)이 올라와 말하기를 구불구불한 길이 고요한 곳으로 통한다. 선(禪) 앉을 방에 꽃(과)나무가 우거진다. 벌써 왔구나. 서로 만난 후 법총(法聰)이 말하기를 先生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장생(張生)이 말하기를 서생은 서락(西洛) 지역에서 이곳에 왔다. 귀한 이곳이 깨끗하고 한적하다고 들어 첫째로 부처에게 참배하고 다음으로는 장노(長老)에게 인사 올려 만나고자 한다. 법총(法聰)이 말하기를 우리 스승은 집에 없다. 소생은 제자 법총(法聰)이다. 先生이 방장(方丈)에 들고 나서 차마시자. 張生이 말하기를 長老가 없다면 차를 그만두라. 거리낌 없이 스님에게 부탁하자. 조금 안내하여 데리고 가서 구경하게 하겠는가? 法聰이 '예'라 했다. 張生이 말하기를 지은 것이 정말로 좋고 옳다. 【村裏迺高(촌리아고)】 위의 불전(佛殿)을 보았다. 또 아래의 승원(僧院)에 이르렀다. 부엌의 서쪽과 가까운 법당(法堂)의 북쪽 鐘 북의 누각의 앞 동굴 방을 둘러봤다. 보배 탑에 올랐다. 구불구불한 회랑을 돌아다녔다. 나는 나한(羅漢)을 모두 세었다. 보살에게 절 하였고 신령한 성현들에게 인사 올렸다. 저기 아주 한 큰 정원이다. 혹시 어떤 곳인가? 서생이 조금 한 번 마음껏 보자. 법총(法聰)이 세우고 말하기를 거기에 가면

[만문전사]

ojorakū. siyan šeng iliki. terei dolo ts'ui siyang guwe-i boigon  
 anggala tehebi serede. jang šeng. ing ing. hūng niyang be sabufi

uculeme. gaitai sunja tanggū aniyai yebcungge ildamu suingga yamtun<sup>90)</sup> be sbuha. [yuwan he ling] halai goiman ningge be minggan tumen sabuha. enteke buyecuke gege be saburengge yala sebkesaka.. mini yasa ilganame. angga gisureci mangga.. fayangga aljafi. abka de kaliha. niyalma de cihai yarkiyabume. hocikon meiren celmerjeme. emdubei ilha be jafašame ijaršambi..

[한문]

不得 先生 請住者 裏<sup>91)</sup>面 是崔相國家眷寓宅 張生 見鶯兒紅娘科 驀然見五百年 風流業冤 【元和令】 顛不刺的見了萬千 這般可喜娘 罕曾見 我眼花撩亂口難言 魂 靈<sup>92)</sup>兒飛去半天. 儘人調戲擲着香肩.

[대역]

안된다. 先生은 멈추시오 그 안에 최상국(崔相國)의 가솔이 살고 있다고 하는 참에 장생(張生)이 앵앵(鶯鶯), 홍낭(紅娘)을 보고 그러고 나서 노래하길 갑자기 오 백 해의 풍아하고 풍류 있는 죄 있는 천식병을 보았다. 【元和令(원화령)】 모양이 준수한 이를 천만 보았다. 이처럼 사랑스러운 아가씨를 만난 것은 정말로 드물게 봤다. 나의 눈이 어지럽고 입(으로) 말하면 힘들다. 혼이 분리된 후 하늘에 날아갔다. 사람에게 마음껏 유혹되고 아름다운 어깨 드리우고 그저 꽃을 잡고 미소 짓는다.

[현대역]

서상기 서문

용도를 처음으로 펼치자 책이 천 대의 기이한 볼거리로 드러났다. 鳥迹을

90) 《滿漢西廂記》에 'suingga yamtun-죄 천식'으로 오기되어 있다. 'suingga yamdun-죄 업'이 맞다.  
 91) 金聖嘆批點 《西廂記》에는 裡라 기록되어 있다.  
 92) 金聖嘆批點 《西廂記》에는 靈이라 기록되어 있다.

처음으로 본뜬 글자로 글을 지어 백 년의 훌륭한 것을 계승하였다. 문학에서 漢나라와 魏나라를 칭송하는 것은 그 때의 작품이 점점 민요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詩는 晉나라와 唐나라에서 완비된 후 그로부터 詞曲에 이르게 되었다. 潘安을 강물과 같다 하고 陸機를 바다와 같다고 한 것은 붓에는 넘쳐나는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이다. 宋玉을 아름답다 하고 班固를 향기롭다고 한 것은 전하여 내려온 일들이 기이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여자들의 섬세한 감정을 드러내어 崔鶯鶯과 張君瑞의 옛이야기를 엮고 헤어지게 하거나 다시 만나게 하는 것이 左氏와 穀梁의 문장이 되었다. 어조와 가락이 사당의 맑은 음악과 비교된다. 國風을 따라 하면서 雅頌을 본받았지만 독창성을 가지고 새로움을 드러냈다. 비단을 짠 것 같아 시인들의 입에 많이 오르내렸고 진주와 옥구슬을 가로세로 짠 것 같아 선비들의 마음이 빠져나오지 못했다. 그러나 기존 판각본들은 漢文만 있을 뿐이다. 독자들은 滿文을 본 적이 없었다. 그리하여 필자가 삼가 책장에서 낡은 책자를 꺼내 당대의 말투로 번역해 보았다. 八法和 六體를 근본으로 하였기 때문에 글자 획이 훌륭하면서 뜻을 다 표현할 수 있었다. 蝌蚪文과 鳥篆을 바꾸니 언어가 명백하고 일의 맥락이 뚜렷해졌다. 이 작품은 참으로 부드러움과 강인함의 龍虎를 붓의 털끝에서 표현했고 蜀紙와 麝香 먹으로 원앙새가 붓끝에서 노닐게 했다고 해도 좋겠다. 그렇게 匠人에게 원고를 넘기고 책판에 새긴 후 영원히 남기도록 하였다. 만주의 才子가 책 한 면을 펴자마자 마음이 후련할 뿐만 아니라 국내의 저명한 사람들도 덮개를 열자마자 얼굴에 기쁨을 드러낼 것이다.

康熙 49년 1월 길일

서상기 권1.

총16장

아름다움에 흠뻑했다. 제1장

목을 집을 구했다. 제2장

소리에 화답했다. 제3장

절에서 장난쳤다. 제4장

아름다움에 홀렸다. 제1장

부인이 鶯鶯과 紅娘, 歡郎을 (무대에) 데리고 올라와 말하기를,

“노신은 성이 ‘鄭’씨이다. 남편의 성은 ‘崔’이고 ‘相國’의 벼슬까지 오른 후 불행하게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내가 이 딸아이를 홀로 키웠다. 아명은 ‘鶯鶯’이고 이제 열아홉 살이지만 바느질이며 김고 수놓은 손일과 詩, 詞, 글 셈까지 못 하는 게 없다. 相公이 있을 때 나의 친정 鄭 尙書의 맏아들 鄭恒에게 허락했었다. 그러나 상이 끝나지 않아 아직 결혼하지 못했다. 이 어린 여자아이는 어려서부터 딸아이 시중드는 아이이다. 이름은 紅娘이다. 이 남자아이는 歡郎이다. 우리 相公이 아이들이 다 자라지 않아 데려다 키운 아이들이다. 相公이 세상을 떠난 후 이 늙은이가 아이들과 함께 주검을 博陵으로 보내 화장하고자 하는데 가는 길이 막혀 앞으로 가지 못했다. 河中府에 와서 주검을 잠깐 普球寺에 안치하였다. 이 절은 天冊金輪, 武則天 낭랑의 칙령으로 지은 공덕을 기원하는 절이다. 長老 法本이라는 사람은 우리 相公의 집에서 출가한 스님이다. 그래서 절의 서쪽에 따로 지은 이 집 한 채가 있어 편히 묵을 수 있다. 한편으로 京城에서 鄭恒을 데려오려고 편지 보낸 후에 함께 모시고 博陵으로 돌아가고자 한다. 내가 돌이켜보니 相公이 계실 때 식사하시려면 한가득 차렸고 따르는 사람들이 수백 명이였다. 지금은 가까운 친척 그저 이 몇 식구뿐이다. 참으로 슬프다.”

[仙侶] [賞花時] [夫人의 노래]

지아비는 경성에서 운 없이 죽고

어미와 자식은 과부와 고아 되어 가다가 도중에 힘이 다 빠졌네

주검을 절의 방에 두고 博陵의 묘지를 바라보았지만 이르지 못한다네

너무 슬퍼 피눈물을 흘리니 두견새처럼 빨개졌네.

“지금 늦봄이니 사람이 얼마나 노곤한가, 紅娘아 너 와보거라. 앞쪽 정원에 사람 없으면 아가씨와 함께 마음 편히 구경하게 일어나거라.”

紅娘이 말하길

“예”

[후렴] [鶯鶯의 노래] 마침 봄의 끝자락을 蒲郡의 동쪽에서 맞이하였네. 쓸쓸한 절의 안쪽 문을 닫고 여러 겹으로 걸었네. 꽃잎이 떨어져 흐르는 물에 물들이고, 괜한 걱정이 몰려오니 말없이 동풍만 나무라네.

부인이 鶯鶯과 歡郎, 그리고 紅娘을 데리고 (무대 뒤로) 돌아갔다.

張生이 琴童을 (무대에) 데리고 올라와 말하기를

“書生은 성은 張이고 이름은 珩이다. 字는 君瑞이다. 본관은 西洛사람이다. 先人은 禮部尙書에 있었다. 書生은 공명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여기저기 한가로이 다닌다. 지금 마침 貞元 17년 2월 상순이고 京城으로 시험 보러 가고 있다. 가는 길에 있는 河中府에 옛 친구가 한 명 있다. 성은 杜이고 이름은 確이다. 字는 君實이다. 나와는 같은 마을 사람으로 한 학교에 있었다. 형제 맺고 의리를 맹세했다. 후에 글공부는 포기하고 군사를 공부해서 武科 장원이 되었다. 征西大元帥가 되어 십만 대군을 이끌고 지금은 蒲關 요새를 지키고 있다. 내가 형님을 찾아뵈고 온 다음 다시 京城으로 가도 늦지 않는다. 내 돌이켜보니 반딧불이 빛과 하얀 눈빛으로 책을 보면서 뱃속에 글을 가득 배웠거늘 항상 들관에서 쓸쓸히 다니는구나. 대체 언제 큰 뜻이 풀릴 것인가? 참으로 만 냥 보검에 가을 물에 감춰져 있고 말에 한가득한 봄날의 수심이 수를 놓은 안장을 눌러앉았구나.”

[仙侶] [點絳脣] [장생의 노래]

중원으로 재주 배우러 오니

발꿈치가 얽매이지 않고 쭉이 뿜구는 것 같구나

우리르는 눈으로 하늘을 보니

해는 가깝고 長安은 멀리 있네.

[混江龍]

詩書經傳으로 눈을 돌려

좀벌레처럼 나오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네

가시나무 처놓은 울타리에 앉은 것도 익숙해졌고  
 쇠 버루가 먹을 갈아 구멍이 났다네  
 구름 길로 봉새의 노정이 구 만 리에 이르기 전에 일찌감치  
 눈 쌓인 창문 반딧불이 빛에 십 년 넘게 고생했다네  
 재주가 높아도 세상 사람 마음에 들기 어렵고 때  
 가 어긋나 사내가 생각한 바를 이루어지게 하지 않는데  
 너는 끊어진 목간과 글에 생각을 다 하고 전념하면 안되겠는가?  
 마침 가던 중에 벌써 黃河가에 도착했다. 너 보아라 얼마나 험악한가  
 [油葫蘆]

아홉 굽이의 바람과 파도가 어디가 거세냐고 하면 바로 여기가 험하다네  
 齊, 梁을 두르고 秦, 晉을 나누고 幽燕을 안고 있네  
 흰 파도는 팔팔거리며 허공으로 일고 하늘가 가을 구름은 말아드네  
 대나무로 밧줄로 떠 있는 다리를 맨 것이 물 위에 푸른 용이 누운 것 같고  
 東西, 九州를 꿰뚫고 南北으로 모든 강을 지나가네  
 돌아오는 배가 빠르지 안 빠르지 어찌 아는가 하면 바로  
 화살이 활시위에서 튕겨 난 것 같네.

[天下樂]

銀河水가 九天에서 내려왔을 것인가 의심하니  
 높은 발원지는 구름 저쪽에 걸려 있네  
 東海에 들어가는 것이 이 길에서 떠나지 않고 이르네  
 洛陽의 천 가지의 꽃을 피우고  
 梁園의 만 이랑의 밭을 적시네  
 나도 뗏목에 앉아 해와 달의 곁으로 이르고 싶다네.  
 말하는 사이 벌써 성안으로 들어왔다. 여기 아주 근사한 묵을 집이 있었다.  
 “琴童아 말 받아라.” 라하고  
 “가게 심부름꾼은 어디 있는가?”라고 하니  
 가게 심부름꾼이 말하길

“壯元坊의 심부름꾼이 저입니다. 관인께서 지내고자 하시면 이 방이 깨끗합니다.”

張生이 말하길

“그럼 이 처음 칸에 묵겠다. 심부름꾼아 너 이리 와 보거라. 이 근처에 어디 구경 다닐 마땅한 곳이 있는가?”

심부름꾼이 말하길

“우리 여기에 普球寺라 하는 절이 하나 있는데 天冊金輪 武則天 娘娘의 칙명으로 세운 공덕을 기원하는 사찰입니다. 지은 것이 남다른니다. 남북으로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좋아하고 아끼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오로지 그곳이 그나마 구경할만 합니다.”

張生이 말하기를,

“琴童아 넌 짐 내리고 말이나 먹이거라. 내가 거기에 얼른 갔다 오마.”

琴童이 말하기를

“예.”

하고 모두 돌아갔다. 法聰이 위로 올라와 말하기를

“스승은 法聰입니다. 이 普球寺의 法本 長老의 제자입니다. 오늘 스승님이 法事하시는 곳에 가셨습니다. 저더러 절에 남아 구경 오거나 초대에 오는 사람이 있으면 기억했다가 스승이 온 다음 알리라고 했습니다.”

절 대문에 서서 보며

“누구 사람이 오셨소?”

張生이 올라와 말하기를

“구불구불한 길은 고요한 곳으로 통하고 禪房에는 꽃(과)나무가 우거졌군요. 우연히 들렀습니다.”

서로 만나고 나서 法聰이 말하기를

“先生은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張生이 말하기를

“저는 西洛에서 이곳으로 왔습니다. 여기가 깨끗하고 한적하다고 들어 우선

부처님께 기도드리고 후에 長老에게 인사 올리고 뵙고자 합니다.”

法聰이 말하기를

“우리 스승은 절에 안계십니다. 小人은 제자 法聰입니다. 先生은 방에 들어가 차를 드시지요”

張生이 말하기를

“長老가 안 계시면 차는 그만두시지요, 개의치 않고 스님에게 부탁 좀 하려는데 조금 안내하고 구경 좀 시켜주시겠습니까?”

法聰이 “예”라 했다.

張生이 말하기를

“절이 정말로 좋고 근사합니다.”

[村裏逐鼓]

동쪽의 부처 殿을 둘러보고 또 아래 스님의 정원에 들렀네  
부엌 서쪽, 法堂의 뒤쪽, 鐘樓의 누각의 앞, 안방을 둘러보고  
보탑에 올라 구불구불한 회랑을 모두 돌아다녔네  
羅漢을 모두 세어보고 보살에게 절하고 신령한 성현들에게 인사 올렸네  
“저기 정말 대단히 큰 정원이군요! 혹시 어디인가요? 제가 어쨌든 한 번 마음껏 보겠습니다.”

法聰이 세우고 말하기를,

“거기에 가면 안 됩니다. 先生께선 멈추세요, 그 안에 崔相國의 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할 때, 張生은 鶯鶯, 紅娘을 보고 노래하길,

“갑자기 오백 해 풍류 있는 업보를 보았다.”

[元和令]

갓가지 어여쁜 것을 수 없이 보았지만  
이처럼 사랑스러운 여인을 본 것은 틀림없이 흔치않네  
내 눈은 어지럽고 입으로는 말하기도 힘들다네  
혼이 나뉘어 하늘로 날아가고 사람을 마음껏 유혹하네  
아름다운 어깨 드리우고 그저 꽃을 잡고 미소 짓네.

### 3. 결론

만주어는 이제 거의 사어가 되어 한때 중국을 호령했던 만주족조차 사용하지 않는다. 이를 관망만 하는 것은 인류의 소중한 자산이 상실되는 것을 무척 임하게 내버려 두는 것과 다르지 않다. 만주어를 재구하고 만주 문헌에 대해 구체적인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사멸된 만주어와 당시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에도 꼭 필요한 부분이다. 최근 만주 학계는 만주어로 작성된 자료를 통해 만주의 역사와 언어를 연구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만주 문학연구에서도 만주어로 작성된 작품으로 연구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滿漢西廂記》의 번역은 이와 같은 연구 흐름에 부응하는 것으로 만주어로 번역된 중국 고전 문학 작품의 이해를 통해 만주어를 이해하고 청나라와 주변 국가 사이에 일어났던 문화 교섭의 정황을 이해하는데 정확하고 중요한 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본 번역은 일본 동경대학교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된(동일본) 《滿漢西廂記》의 序文과 1책에서 張生이 鶯鶯을 우연히 보게 되는 부분까지 번역했다. 또 대만도서관 소장본과 미국 국회도서관 필사본과의 비교를 진행해 《滿漢西廂記》의 특징을 확인했다. 번역은 만주어를 벨렌도르프의 표기법에 따라 전사하고 대역한 뒤 현대역으로 표현하는 순으로 진행했다. 이를 통해 한자 표기법에 차이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한자어(특히 고유명사)를 표기하는데 東京大學本이 臺北國家圖書館本에 비해 음역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서문은 간본과 필사본, 만주어본, 합벽본에 모두 있는데 내용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미루어 가장 먼저 나온 것을 후대의 번역들이 참고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文’을 번역할 때 동경대학본은 ‘wen jang’이라 하고 臺北國家圖書館本은 ‘šū fiyelen’으로 쓰는 것처럼 한자어 표기에 차이가 있었다.

간혹 오역이 발견되기도 하는데 鶯鶯의 노래 중 梁나라 武帝가 부처를 좋아해 절을 세우고 무제의 성을 붙여 蕭寺라 한 것을 ‘simacuka miyoo-쓸쓸한

절'로 번역하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전반적으로 《滿漢西廂記》는 《西廂記》 특유의 화려한 문체와 세밀한 묘사 등의 표현은 평이하게 科白과 曲文, 對句는 풀이하듯 자세히 번역하고 있다.

본 번역은 《滿漢西廂記》에 있는 만주어 자료들을 자세하게 조사하고 만주족이 왜 소설도 아닌 낯선 희곡작품을 번역하고자 하였을까? 왜 청 황실은 풍속을 해치는 책으로 우려해 금서 조치를 내리면서 황실 번역기관을 통해 번역하게 하였을까? 만주족은 한족의 희곡을 어디까지 이해하고 수용하였을까? 원전과 번역본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조선 번역본과 만주어 번역본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등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진행되었다. 《滿漢西廂記》의 번역이 완성되면 淸(만주족)에 없는 明(한족)의 문화와 사회는 어떻게 이해되었는지도 살필 수 있을 것이다.

만주어로 번역되고 기록된 희곡 자료에 대한 번역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이다. 만주어 연구자가 드물고 만주 문학연구는 거의 없는 국내 연구 현실에서 중국 희곡인 《滿漢西廂記》의 번역은 만주어, 중국어, 중국 번역 문학뿐 아니라 한국어 연구와 17세기 후반 동아시아 언어교류 연구에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 參考文獻 >

- 昭 槿, 《嘯亭雜錄》, 中華書局, 1980.  
 徐 珂, 《清稗類鈔》, 中華書局, 1986.  
 袁 枚, 《隨園詩話》, 上海古籍出版社, 2011.  
 《御製增訂淸文鑑》, 吉林出版集團, 2005.  
 《御製增訂淸文鑑》, 吉林出版集團, 2005.  
 國立故宮博物院編, 《國立故宮博物院 普通舊籍目錄》, 臺北: 國立故宮博物院, 1970.  
 黃潤華·屈六生編, 《全國滿文圖書資料聯合目錄》, 書目文獻出版社, 1991.  
 吳雪娟, 《滿文文獻研究》(滿一通古斯語言文化研究文庫), 北京: 民族出版社, 2006.

- 郭孟秀, 《滿文文獻概論》(滿-通古斯語言文化研究文庫), 北京: 民族出版社, 2004.  
吳元豐, 《北京地區滿文圖書總目》, 遼寧民族出版社, 2008.  
李德啓, 《滿文書籍聯合目錄》, 國立北平圖書館, 1933.  
富麗, 《世界滿文文獻目錄》, 中國民族古文字研究會, 1983.  
胡增益, 《新滿漢大詞典》, 新疆人民出版社, 1994.  
김득황, 《기초 滿韓辭典》, 大地文化社, 1995.  
이훈편저, 《滿韓辭典》, 民族文化研究員, 2017.  
季永海, 《滿漢西廂記》與《精譯六才子詞》比較研究, 《滿語研究》, 2013.  
寺村政男編, 《滿漢合璧西廂記》の總合的研究, 2013.  
<http://kanji.zinbun.kyoto-u.ac.jp/>  
<https://www.wdl.org/en/item/4686/>

< Abstract >

Introduction and Commentary of Man-Han hebi Xixiang ji

Kim, Sookyung

Among the non-Han minorities, the Manchus were an ethnic group who ruled the Chinese continent for the longest period of time. They were the ruling elites of the Qing dynasty (1644-1912), attaining a dominant position over the Han Chinese. However, the linguistic and cultural exertions of the Manchus were relatively limited, and thus they strived to actively engage with the language and culture of the Han in order to preserve and reinforce their native language and cultural identity, which were yet to be firmly established. The Qing court installed Bureau of Translation within the imperial palace, and had the professional translators render the Han Chinese literary works, such as Book of Songs and Records of the Three Kingdom, into the Manchu scripts. During the span of nearly two centuries from 1650 to 1848, the Manchus translated more

than fifty works of Classical Chinese literature including *The Romance of the Western Chamber* (*Xixiang ji* 西廂記), the famous love story of Yingying and Zhangsheng cherished by the Chinese for more than a thousand years.

This paper provides a modern Korean translation of *The Manchu-Han Bilingual version of the Romance of the Western Chamber* (*Man-Han hebi Xixiang ji* 滿漢合璧西廂記), which is a Manchu translation of Ming dynasty drama *Xixiang ji*, and examines its characteristics. *Xixiang ji* is a work that exerted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adjacent countries and minority groups. It is the most translated work among the classical Chinese dramas, entailing a wide variety of criticisms, adaptations, and annotated reading aids. The Manchus translated *Xixiang ji* into their language in 1708 and 1710 and published *Si siyang gi bithe* 滿文西廂記, which remains as a sole dramatical work that is in the Manchu script.

Then why did the Manchus translate *Xixiang ji*? What is the significance of this act of translation and how did these works contribute to dissemination of classical Chinese literature? Why did the Manchus translate a drama rather than a novel? Why did the Qing court translate and circulate *Xixiang ji* within the imperial palace, a work that was deemed corrupting public morals and thus banned? To what extent did the Manchus understand and embrace the Han Chinese dramas? These are the questions that I intend to address through translating and analyzing *Man-Han hebi Xixiang ji*.

The Manchu literature has not been much studied, for it was seen that the Manchus did not have their own literary works. However, the Manchus indeed had literary works of various genres, including the considerable amount of translated works of the classical Chinese literature. This study of *Man-Han hebi Xixiang ji* intends to illuminate the Manchu's linguistic customs, culture, perception and reception of the classical Chinese literature.

The study of classical Chinese literary works in the Manchu scripts including *Man-Han hebi Xixiang ji* is necessary for the following reasons. First, it facilitates the understanding of the direct linguistic interaction and merge of

Manchu and Chinese, which cannot be obtained only by looking at Xixiang ji in Chinese, or Manchu literary work in Manchu script. Second, it enables us to grasp the characteristics of Manchu language and Manchu-Chinese translation through the vocabulary information found in Man-Han hebi Xixiang ji, and thereby find the organic connection between Manchu and Chinese. Third, the comparative studies of the Manchu, Chinese, and Korean editions of Xixiang ji would further our understanding of East Asian linguistic exchanges occurred in the late 17th century.

This is the first attempt at translating a drama in Manchu script in South Korea. This translation would provide abundant vocabulary information to the scholars of Manchu studies. It would also expand the pre-existing field of Qing literature, which eventually would expand the field of the classical Chinese literature. This study is an attempt at laying a ground for further studies, which in the long term would facilitate the firm establishment of Manchu studies in Korea.

Key words: Manchu, Translation, The Romance of the Western Chamber, drama, literary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9.02.09	2019.02.16	2019.02.17	2019.03.02	2019.03.31